

가정과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김은정* · 권유진** · 이윤정***¹⁾
중등중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고려대학교***

Research Trends in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Eun Jeung Kim* · Yoojin Kwon** · Yoon–Jung Lee***¹⁾
Joongdong Middle School · KICE** ·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in three major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From each of the research studies,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he related content area, and the learning effect measures were quantitatively codifi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teaching–learning method studie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nd peaked in 2010 and 2011. The most frequently studied content areas were combinations of more than two content areas, and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eaching–learning method was the Content–Based methods, followed by Practical Thinking/Problem Solving, and IT–Based methods. The most frequently used measures of learning effect were Knowledge/Understanding, Attitudes toward Home Economics subject, General Attitudes/Competencies, and the Attitudes toward the Instructional Method, in the order of frequ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teaching–learning method research and als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document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for secondary education.

Key words: Home Economics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Research Trends

1) 교신저자: Yoon-Jung L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6, Fax: 02-927-7934, E-mail: yleeh@korea.ac.kr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교육과정 기초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문서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won et al., 2013).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체제 연구란 교과 성격, 교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문서가 교과에 적합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Lee, 2013). 이 중 교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교과의 내용 및 역량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하여 현장 수업에서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항목들은 교육과정의 절차를 제시하는 부분(Lee, 2013)으로 실제 교과 수업에 적용할 때의 유의점 및 강조점이 기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항목은 교육과정 내용 영역을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며,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과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약간의 해석서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도구 등을 안내하거나 혹은 이들을 평가할 준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의 교육과정 문서 상 교수·학습방법 부분에서 가정교과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대한 체계적 연구나 학계의 합의가 부족했다고 본다.

국내 타 교과 교육과정이나 해외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Kwon, 2014; Kim et al., 2011; Chae, 1996), 예를 들어 도덕과와 경우 핵심역량이 내용 체계에 포함되어 있고, 과학과의 경우 성취기준에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탐구활동’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가정과 국가 기준(NATEFACS, 2008)의 경우, ‘실천적 추론’이라는 공통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과정 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가정 교육과정의 경우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교과 목표와 평가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 일본의 가정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면, 교수·학습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Kwon et al., 2013). 이렇듯 국가별로 교육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수업 시 교과별 유의점 등에 대한 제시에 그치고 있어 학교의 교과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교과 교육학 연구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등에 게재된 가정교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열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메타분석 수준의 가정교과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은 실제 수업 현장에 활용되고 결국 평가에 적용될 때만이 구현되는 설계도이며(Kwon, 2013), 교수·학습 방법은 교과의 목표, 핵심역량, 교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이 실제로 의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Lee, 2013).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항목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과교육 분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과정 문서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 준거의 밑거름이 될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가정과 및 타 교과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분류하는 다양한 교과 교육학적 방식들을 검토하고,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연구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변수들은 곧 교과 교육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연구에 조사된 효과변수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가정과의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교수·학습 방법의 개념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교사가 설정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학습’은 교수의 결과로 학습자에게 얻어지는 새로운 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습자의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학습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특정한 행동 즉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수는 수업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은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학습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이며, 교수는 수업의 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Cho, 2006). 즉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교수, 학습 매체를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데 비하여, 교수는 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이고,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업이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한다면 수업은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Ko, 2008).

학습의 개념은 학습 이론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 일관된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Kwon & Kim, 2010).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나 조건화를 통한 행동과 습관의 변화를 학습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인지 학습 이론에서는 통찰에 의한 인지 구조의 변화,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에 근거한 의미의 구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학습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나 기본적인 가정을 찾아 통합해 보면, 학습은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과 각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획득해 가는 일련의 인지과정”(Park & Yeom, 2006, pp. 14-15)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학습자들이 정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제공된 학습 조건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ho, 2006). 이러한 교수·학습은 독립적이기보다

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계속적인 활동이다.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 학습자의 특성, 집단의 크기 등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교수 방법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 방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수단’으로 현재의 상태에 있는 학습자에게 설정된 교수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정된 교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과정이다(Byun & Kim, 1996). 전통적으로 교사 주도적인 수업활동을 의미하는 ‘지도법’ 혹은 ‘교수법’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활동이 중시되면서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수·학습 모형’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제 수업 전개를 위해 교수자가 어떤 수업 모형이나 기법 등을 적용하여 구성한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의미한다(Suh, 2005). 즉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과정을 적용하는 방법(Kang, 2010)이면서, 수행 방식을 가리키는 총칭적 의미로 사용된다(Suh, 2005). 최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은 교수·학습의 현상 즉 교수·학습 현장에 대한 관심과 수행적 측면의 상황성과 실제성, 그리고 경험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을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보지 않고 의미의 생산 과정으로 보는 후기 구조주의적 시각과 의미 구성의 사회적 측면, 상호작용적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Kim, 2005).

2. 교과의 특성과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교육설계의 부분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수·학습과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왔다. 교수·학습 방법을 잘 구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내용뿐 아니라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이나 전략, 기법을 잘 알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내용, 교사, 학생,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교수·학습 방법이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Suh, 2005). 이는 최근 하나의 교수·학습방법만으로는 다양한 학습내용과 학습자, 학습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혼합교육(Blended Learning)의 배경에서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 매력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수업의 효과성은 학습목표의 달성, 장기 기억 가능성, 전이 및 다른 지식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 수업의 효율성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경제성이 기준이 된다. 수업의 매력성은 교사나 학생 모두 그 교수방법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로 학습동기가 그 기준이 된다(Park & Yeom, 2002).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각 교과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는 교과의 내용, 즉 교과의 성격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의 특성뿐 아니라 가르칠 내용의 특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교과에 따라 그리고 학생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Kim, & Lee, 2008). 교육 내용의 선정과 수준 및 내용 사이의 계열성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교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교과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각 교과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축적된 교수·학습 방법 연구를 통합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메타수준의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Hur, Park, & Ko, 2010; Jang, 2007; Kang, 2010; Kim, 2007; Kim & Hwang, 2005; Song, 2009).

예를 들면, 한문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Kim 2007; Song, 2009)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는 통합분석적 연구에서 교수·학습 방법

을 행동 중심, 내용 중심, 매체 중심, 전통적인 학습방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교사 중심의 강의법, 질문법, 토론법, 개별학습법, 브레인 스토밍과 버즈 학습법, 문제중심 학습법, 협동학습법, 자기 주도적 학습법, 역할놀이 학습법, 낭독법 등이 포함된다. 내용 중심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부수 중심 지도법, 구조분석법, 조어 분석법, 이야기를 통한 고사성어 학습법, 도제식 한시 교수·학습법, 자원 활용법, 비교학습법, 허자지도를 통한 독해 지도법, 어순 구조를 통한 독해 지도법 등이 있다. 매체 중심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언어 활용법, 색출법, 이미지컷 활용 학습법, 한자카드 활용법, NIE 활용 학습법, 웹기반 교수·학습 방법, 옥편 활용 지도법 등을 포함하였다. 한문 교과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낭독법, 현토법 등을 구분하고 있다.

과학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를 정리한 Kang(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교과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수·학습방법으로는 질문법, 토의법, 실험, 현장학습, 시범실험, 역할놀이, 협동학습, 개념도가 있으며, 그 중 실험수업과 협동학습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회교과의 법교육과 관련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Hur, Park, & Ko, 2010)에서는 사례 연구법,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모의재판, 지역사회 기반 학습 등의 학습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Jeon(1998)은 실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탐색 없이 교수·학습 지도의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방향의 제시,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수업지도안이나 모형의 개발, 학습 지도에 대한 단순한 실태 조사와 같은 주제에만 연구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원리나 방법의 지향점과 실과교육 전반에 관한 교수·학습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과에서의 교수·학습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즉 아동 중심의 학습활동, 실습 중심의 학습활동, 생활화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실과 교수·학습의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학습법, 프로젝트법, 시범·실습법의 세 가지 방법이 실과에 가장 적합한 교

수·학습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Wang(2003)은 실과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각 지도영역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으로서 홈프로젝트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실과교육은 노작교육과 활동 중심 교육을 지향하므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학습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였다. Kwon(2005)은 가정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한 연구에서 단순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는 창의적 실천, 실험·실습을 통한 체험적인 과정,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 ICT 활용 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각 교과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 교과에서 축적되어 온 교수·학습 방법 적용연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을 통합하고 연구동향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가정과 내에서 교과내용학의 각 세부영역에서의 연구동향을 살핀 선행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Chang, 2007; Cho et al., 2009; Kim & Lee, 2005; Moon & Lee, 2009; Yu et al., 2008),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은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과교육학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서 연구된 교수·학습 방법 관련 논문 현황과 영역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가정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분류하고 이를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실과 또는 가정 교과와 관련된 학술지에 게재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가정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동

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교과특정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한문, 사회, 과학 등의 타교과에서 이루어진 교수·학습 방법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예를 참고하여(Hur et al., 2010; Kang, 2010; Song, 2009) 시대별, 주제(내용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종류별 연구동향을 살피고(연구문제 1), 시대별, 주제별로 교수·학습 방법 종류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연구문제 2),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종속변수들의 경향을 파악하고(연구문제 3), 가정교과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주요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세부적 경향을 검토하는 내용으로(연구문제 4)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가정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대체적 동향을 알아본다.

- 시대별 교수·학습 방법 연구수를 알아본다.
- 내용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연구수를 알아본다.
- 교수·학습 방법의 종류별 연구수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교수·학습 방법의 종류별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 시대별 교수·학습 방법 종류의 차이를 알아본다.
- 내용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종류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사용한 효과변수에 대해 알아본다.

- 시대별 교수·학습 방법 효과변수의 차이를 알아본다.
- 내용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효과변수의 차이를 알아본다.
- 교수·학습 방법별로 채택된 효과변수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4. 실천적 추론/문제해결법, 실험실습법, 협동 학습법, ICT 등 가정교과에서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세부적 경향을 알아본다.

2.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가정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가정교육학회지를 비롯하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등의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추출한 결과 총 250개의 논문이 선택되었다. 이 중 중등 가정교과 수업에 대한 적용을 위해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 219개의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는 한국실과교육학회지에서 72편, 한국가정교육학회지에서 138편, 대한가정학회지에서 9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가정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또는 효과변수의 범주화를 위해서는 미리 완성된 분석틀을 이용하지 않고 자료의 검토과정에서 범주화를 통하여 분석틀을 발견해 가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큰 범주들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설정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범주를 만들어가거나, 포괄적인 범주 내에 세부범주를 나누어 상호배제적이고 포괄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Kondracki, Wellman & Amundson, 2002).

3. 분석틀 및 데이터 코딩의 절차와 방법

각 논문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을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총 219개의 논문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코딩의 결과를 수합한 것을 연구자 3인이 함께 모여 검토하며 코더들 간의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하였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 토론을 통하여 최종코딩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코딩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정보

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권, 호, 시작페이지, 연구제

목 등을 기록하였다.

2) 교수·학습 방법의 분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분류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특성을 유목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Song(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중심(1), 활동중심(2), 매체중심(3)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각 분류에 따라 점수화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각 논문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세부범주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내용중심 1개 범주(11. 내용중심), 활동중심 7개 범주(21. 실천적 문제해결; 22. 모형/패러다임; 23. 실습/노작; 24. 프로젝트; 25. 협동학습; 26. 포트폴리오; 29. 기타 활동중심), 매체중심 2개 범주(31. ICT; 32. 기타 매체)의 총 10개의 교수·학습 방법의 범주를 추출하여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범주는 아래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류하였다.

먼저 ‘내용 중심(coding=11)’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안 및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 등을 위한 교수·학습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다. ‘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영역 교수·학습 방법으로 잘 알려진 ‘실천적 추론’ 혹은 ‘실천적 문제해결(coding=21)’은 일반적인 문제해결법 뿐만 아니라, 문제중심 학습, 실천적 문제 중심 학습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모형/패러다임(coding=22)’의 경우는 교육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나 패러다임을 가정과에 적용한 연구들을 의미한다. ‘실습/노작(coding=23)’은 가정영역 관련 실습 및 실험 학습과 초등의 노작학습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해당된다. ‘프로젝트(coding=24)’는 구안법 혹은 프로젝트법을 활용하여 구성된 초·중등 교수·학습방법을 의미하며, 주로 초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다. 위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협동학습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영역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협동학습 자체 관련 연구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연구들을 ‘협동학습

(coding=25)'으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포트폴리오(coding=26)'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연구들이었고, 앞서 언급한 교수·학습 방법에 속하지 않으면서 매체 중심 교수·학습 방법도 아닌 연구들이 '활동중심 기타(coding=29)'로 분류되었다. 매체 중심 연구들 중 컴퓨터 또는 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어 'ICT(coding=31)'로 분류하고 나머지 매체 중심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기타 매체(coding=32)'로 분류하였다.

3) 내용영역

각 논문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내용영역을 코딩하였다. 내용영역은 아동/가족분야(1), 소비/가정경영(2), 의생활(3), 식생활(4), 주생활(5), 생애설계 및 진로(6), 문화/통합(7), 환경(8), 기타(9) 등으로 점수화하였다. 2가지 이상의 내용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문화/통합” 범주로 통합하여 코딩하였다.

4) 효과변수

분석 대상 논문 중 일부는 교수·학습과정안만 제시하였을 뿐 실제 수업을 수행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가에게 평가를 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 전혀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제 수업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변수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아 효과변수를 기록하였다.

먼저 누구에게 평가를 하게 하였느냐에 따라 학생과 교사/전문가의 2집단으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학생에게 평가를 하게 한 경우 다양한 변수를 측정할 경우가 많아 오픈 코딩 방식을 통하여 7개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체계에 따라 코딩하였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 중 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인식(11), 교사에 대한 태도(12), 적용된 교수·학습방법 또는 수업 자체에 대한 태도(13), 지식/이해도 위

주의 학업성취도(14), 수업에서 다루진 교과내용 관련 태도(15), 교과내용과 관련 없는 일반적 태도나 역량(16)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수업에서 다루진 교과내용과 관련된 태도의 예로는 친환경적 생활에 대한 수업 후에 학생들의 환경 친화적 태도를 측정한 경우이다. 그에 비하여 창의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수업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나 수업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우 일반적 태도/역량(16)으로 분류하였다. 위에 언급된 영역이 아닌 효과들을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경우는 학생측정-기타(19)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하여 교사 또는 전문가에게 수업설계 또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평가를 시킨 경우(20)가 있었다. 또한 위의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없는 경우 기타(99)로 분류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다. 내용분석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χ^2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효과변수의 경우는 중복응답이 가능하였으므로 SPSS의 다중응답 기능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가정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대체적 동향

먼저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대체적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대별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1년에 5편 이하로 게재되던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증가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는 최고 연 17편까지 게재되는 추세를 보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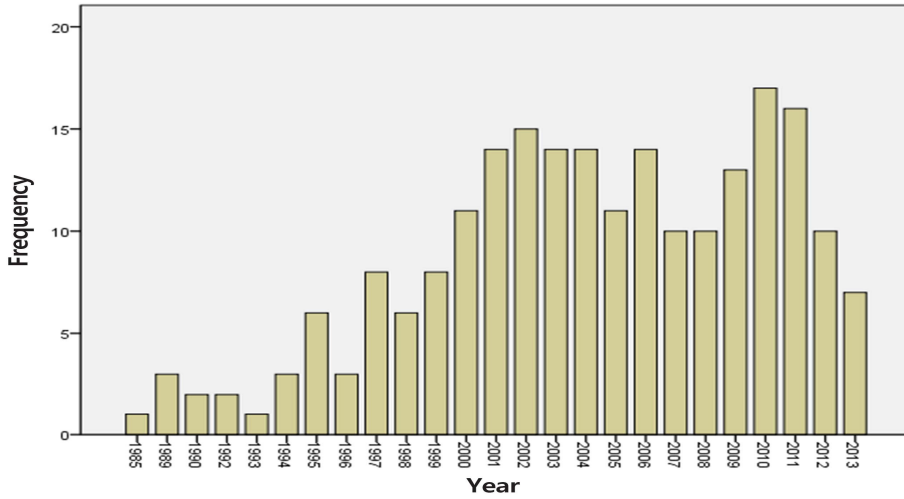


Figure 1. The numbers of teaching-learning method research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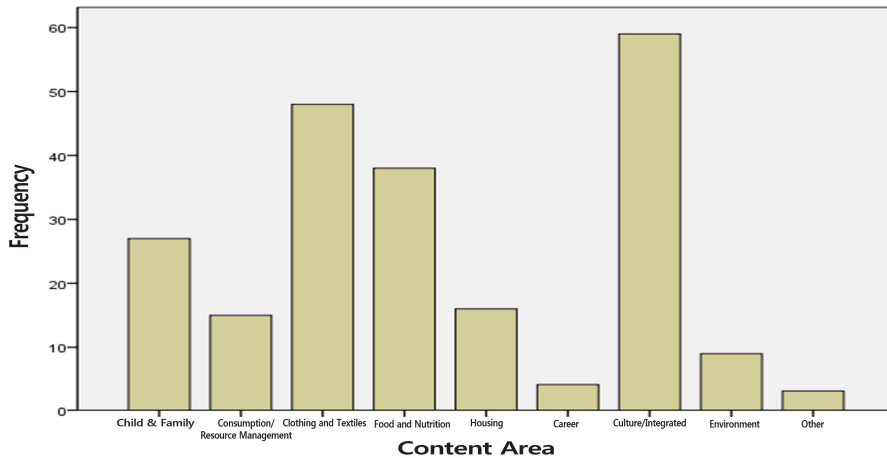


Figure 2. The numbers of teaching-learning method research by the content area

는 추세를 알 수 있었다.

내용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내용영역을 특별히 나누지 않고 “생활문화” 등으로 다루거나 두 가지 이상의 주요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한 ‘문화/통합’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n=59, 26.9%), 그 다음으로는 의생활(n=48, 21.9%), 식생활(n=38, 17.4%), 아동/가족(n=27, 12.3%), 주생활(n=16, 7.3%), 소비/가정경영(n=15, 6.8%)의 순이었다. 그 외에 환경, 진로, 기타 영역이 나머지 7% 가량을 구성하고 있었다.

가정 교과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방법은 내용중심 방법(n=42, 19.2%)과 IT 관련 매체(n=42, 19.2%), 실천적 추론/문제해결법(n=40, 18.3%) 등이었다. 그 외에 모형/패러다임(n=34, 15.5%), 실습/노작(n=18, 10.6%), 협동학습(n=13, 5.9%)이 많이 연구된 교수·학습 방법이었다.

2. 교수·학습 방법 종류별 연구 동향

가정 교과에서 연구대상이 되었던 교수·학습 방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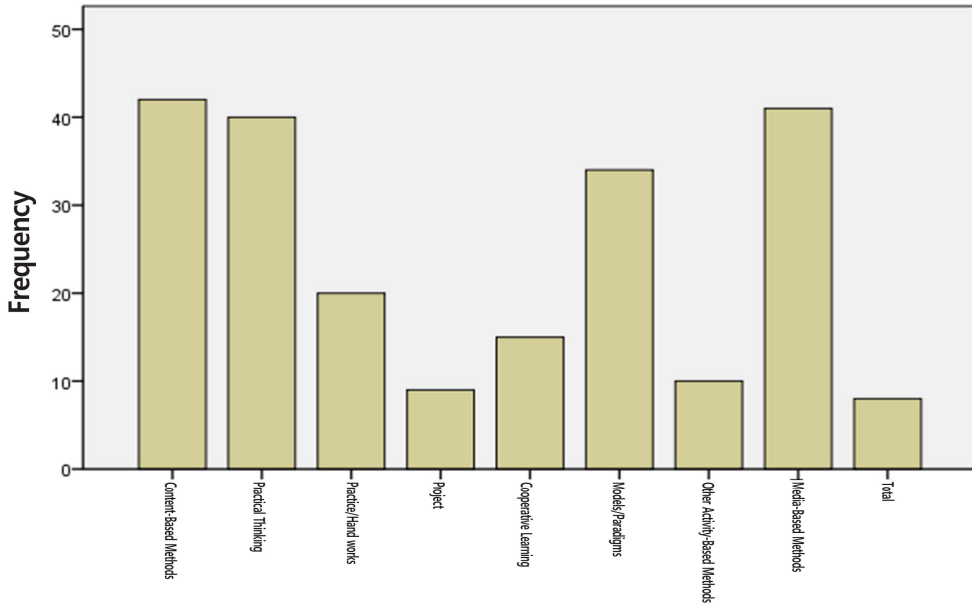


Figure 3. The numbers of teaching-learning methods by the method

종류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통한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8.60$, d.f.=28, $p=.009$).

구체적으로 1995년 이전에는 내용중심 방법과 실습/노작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은 데 비하여 특히 2001~2005년 사이에는 ICT관련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6~2010년에 실천적 추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증

가하여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과 협동학습은 2000년대에만 잠시 관심을 끌고 2010년에는 관련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내용영역별로도 주로 연구된 교수·학습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자승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진로, 환경 등의 소수 영역의 경우 빈도수가 0인 셀이 많아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5개 주요영역과

Table 1.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by year($\chi^2=48.60$, d.f.=28, $p=.009$)

(n, % in category)

	YEAR					Total
	up to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3	
Content-Based Methods	4(22.2)	6(16.7)	14(18.7)	9(14.5)	9(32.1)	42(19.2)
Practical Thinking	2(11.1)	5(13.9)	12(16.0)	15(24.2)	6(21.4)	40(18.3)
Practice/Hand works	4(22.2)	2(5.6)	9(12.0)	6(9.7)	0(0.0)	21(9.6)
Project	1(5.6)	0(0.0)	3(4.0)	5(8.1)	0(0.0)	9(4.1)
Cooperative Learning	1(5.6)	6(16.7)	4(5.3)	1(1.6)	1(3.6)	13(5.9)
Models/Paradigms	2(11.1)	9(25.0)	9(12.0)	8(12.9)	6(21.4)	34(15.5)
Other Activity-Based Methods	0(0.0)	1(2.8)	1(1.3)	3(4.8)	5(17.9)	10(4.6)
Media-Based Methods	4(22.2)	7(19.4)	23(30.7)	15(24.2)	1(3.6)	50(22.8)
Total	18(100.0)	36(100.0)	75(100.0)	62(100.0)	28(100.0)	219(100.0)

Table 2. The teaching-learning methods by content area($\chi^2=47.554$, $d.f.=35$, $p=.010$)

(n, % in category)

	Content Areas						Total
	Child & Family	Consumption/Resource Management	Clothing and Textiles	Food and Nutrition	Housing	Culture/Integrated	
Content-Based Methods	11(40.7)	2(13.3)	10(20.8)	3(7.9)	3(18.8)	10(16.9)	39(19.2)
Practical Thinking	7(25.9)	5(33.3)	9(18.8)	9(23.7)	4(25.0)	4(6.8)	38(18.7)
Practice/Hand works	0(0.0)	0(0.0)	7(14.6)	7(18.4)	0(0.0)	6(10.2)	20(9.9)
Project	0(0.0)	0(0.0)	3(6.3)	2(5.3)	1(6.3)	2(3.4)	8(3.9)
Cooperative Learning	1(3.7)	0(0.0)	1(2.1)	6(15.8)	3(18.8)	1(1.7)	12(5.9)
Models/Paradigms	4(14.8)	1(6.7)	5(10.4)	6(15.8)	0(0.0)	16(27.1)	32(15.8)
Other Activity-Based Methods	1(3.7)	1(6.7)	1(2.1)	1(2.6)	1(6.3)	4(6.8)	9(4.4)
Media-Based Methods	3(11.1)	6(40.0)	12(25.0)	4(10.5)	4(25.0)	16(27.1)	45(22.2)
Total	27(100.0)	15(100.0)	48(100.0)	38(100.0)	16(100.0)	59(100.0)	203(100.0)

통합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2 분석 결과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chi^2=47.554$, $d.f.=35$, $p=.010$).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내용중심($n=11$, 40.7%)과 실천적 추론($n=7$, 25.9%)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적용되었고, 그 뒤로 모형/패러다임($n=4$, 14.8%), 매체중심($n=3$, 11.1%) 등이 적용되었다. 소비/경영 영역에는 매체중심($n=5$, 33.3%)과 실천적 추론/문제해결($n=5$, 33.3%)이 주로 적용되었고, 의생활의 경우는 매체중심($n=12$, 25.0%), 내용중심($n=10$, 20.8%), 실천적 추론/문제해결($n=9$, 18.8%), 실습/노작($n=7$, 14.6%)의 순이었다. 식생활은 실천적 추론/문제해결($n=9$, 23.7%)이 가장 많았으며, 실습/노작이 7편(18.4%), 모형/패

러다임($n=6$, 15.8%), 협동학습($n=6$, 15.8%)이 그 뒤를 이었다. 주생활은 내용중심($n=4$, 25.0%)과 매체중심($n=4$, 25.0%), 실천적 추론($n=3$, 18.8%)과 협동학습($n=3$, 18.8%)이 적용되었다. 문화/통합 영역에서는 모형/패러다임과 매체중심이 가장 많았고(각각 $n=16$, 27.1%) 그 다음으로는 내용중심($n=10$, 16.9%)이었다.

3.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활용된 효과변수

<Table 3>에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된 효과 변수의 빈도가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

Table 3. The frequencies of learning effect measures(multiple responses)

Learning Effect Measures	n	% out of cases	% out of responses
Interests in the subject	33	12.7	21.6
Attitude toward teacher	1	0.4	0.7
Attitude toward teaching methods	43	16.5	28.1
Knowledge/Understanding	52	20.0	34.0
Subject-area-related attitudes	51	19.6	33.3
General attitudes/competencies	38	14.6	24.8
Student Evaluation Others	3	1.2	2.0
Teacher/Expert Evaluation	24	9.2	15.7
Evaluation Other	15	5.8	9.8

Table 4. The frequencies of learning effect measures by year(multiple responses)

	Year					Total
	up to 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3	
Interests in the subject	7(63.6)	6(30.0)	9(16.4)	10(22.2)	1(4.5)	33
Attitude toward teacher	0(0.0)	1(5.0)	0(0.0)	0(0.0)	0(0.0)	1
Attitude toward teaching methods	2(18.2)	5(25.0)	7(12.7)	19(42.2)	10(45.5)	43
Knowledge/Understanding	8(72.7)	3(15.0)	23(41.8)	15(33.3)	3(13.6)	52
Subject-area-related attitudes	2(18.2)	2(10.0)	15(27.3)	20(44.4)	12(54.5)	51
General attitudes/competencies	1(9.1)	3(15.0)	17(30.9)	12(26.7)	5(22.7)	38
Student Evaluation Others	0(0.0)	2(10.0)	1(1.8)	0(0.0)	0(0.0)	3
Teacher/Expert Evaluation	2(18.2)	3(15.0)	12(21.8)	4(8.9)	3(13.6)	24
Evaluation Other	0(0.0)	7(35.0)	6(10.9)	1(2.2)	1(4.5)	15
Total	11	20	55	45	22	153

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6.8%는 교사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다. 하나의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할 경우가 많았으므로 효과변수는 중복응답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이렇게 측정된 효과변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지식 또는 이해도 관련 학업성취도(n=52), 가정교과와 관련된 태도 변화(n=51), 일반적 태도 또는 역량 변화(n=38), 수업/방법에 대한 태도(n=43) 등의 순이었다.

가정교과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

변수가 연도별·내용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변화를 보았을 때, 1995년 이전에는 지식/이해도 평가(72.7%)와 교과에 대한 흥미도(63.6%)가 가장 많았다. 그러다가 1996~2000년과 2000년대 초기(2001~2005)에는 다양한 효과변수가 활용되었고, 2006~2010년부터는 교과와 관련된 태도변수 또는 일반적 태도변수의 활용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가정교과에서의 교육적 목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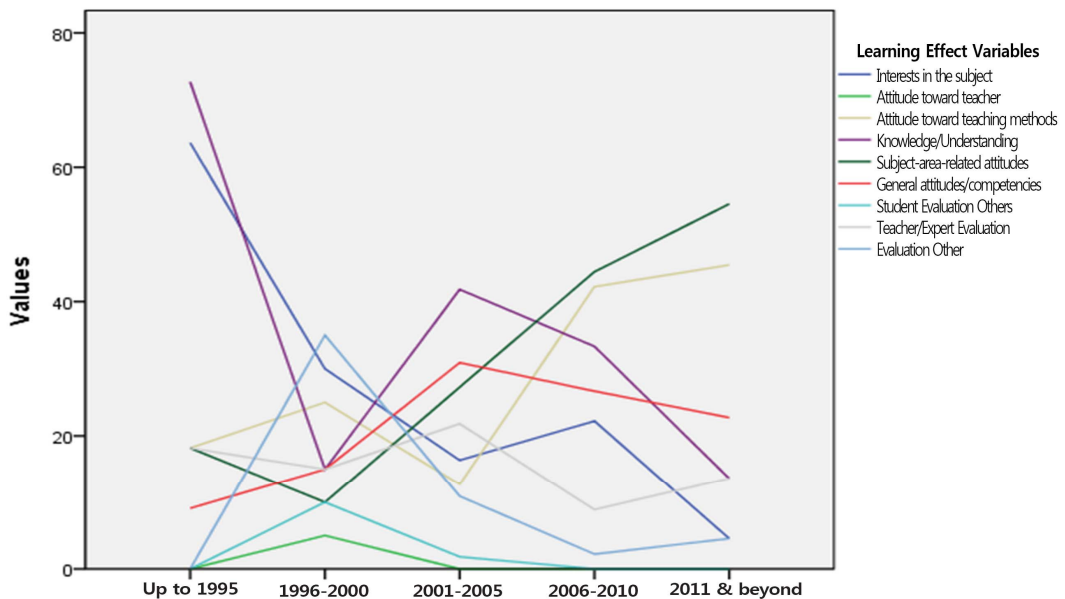


Figure 4. The trends in the use of learning effect measure by year

Table 5. The frequencies of learning effect measures by content area(multiple responses)

	Content Areas						Total
	Consumption /Resource Management	Clothing and Textiles	Food and Nutrition	Housing	Culture/ Integrated	Total	
Interests in the subject	2(11.1)	2(16.7)	8(22.9)	11(34.4)	4(33.3)	4(12.9)	31
Attitude toward teacher	0(0.0)	0(0.0)	0(0.0)	1(3.1)	0(0.0)	0(0.0)	1
Attitude toward teaching methods	6(33.3)	2(16.7)	11(31.4)	11(34.4)	6(50.0)	5(16.1)	41
Knowledge/Understanding	3(16.7)	5(41.7)	17(48.6)	16(50.0)	3(25.0)	6(19.4)	50
Subject-area-related attitudes	6(33.3)	3(25.0)	12(34.3)	11(34.4)	6(50.0)	4(12.9)	42
General attitudes/competencies	7(38.9)	2(16.7)	13(37.1)	4(12.5)	1(8.3)	9(29.0)	36
Student Evaluation Others	0(0.0)	1(8.3)	0(0.0)	1(3.1)	0(0.0)	0(0.0)	2
Teacher/Expert Evaluation	3(16.7)	3(25.0)	4(11.4)	2(6.3)	3(25.0)	8(25.8)	23
Evaluation Other	2(11.1)	0(0.0)	2(5.7)	4(12.5)	0(0.0)	6(19.4)	14
Total	18	12	35	32	12	31	140

내용영역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수업/방법에 대한 흥미도와 교과 관련 태도 또는 일반적 태도/역량을 측정할 때 비하여 식생활 분야는 주로 교과에 대한 흥미도 또는 지식/이해도 위주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소비자 분야와 문화/통합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교사에게 평가를 시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 분야는 지식/이해도 평가나 교과관련 태도변화를 보았다. 의생활 분야는 지식/이해도 측정이 많은 편이었고 수업/방법에 대한 태도나 교과관련태도, 일반적 태도/역량

등의 측정이 많았다.

4. 주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세부적 분석

1) 실천적 추론/문제해결법

관련 학술지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실천’과 ‘문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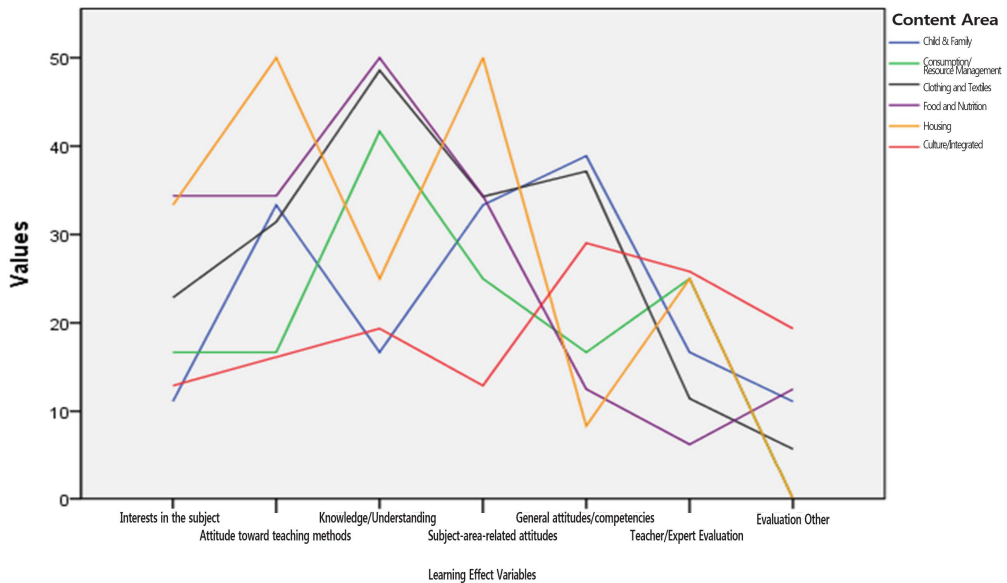


Figure 5. Trends in the use of learning effect measures by content area

결'과 관련한 논문은 총 40개이다. 세부적으로는 '실천적 추론' 및 '실천적 문제 중심', '문제해결학습', '문제중심학습', '창의적 문제해결수업' 등등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논문을 '문제'와 '실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문제중심', '문제 해결'이 논문 제목에 포함된 논문은 총 26개이며, 이 중 '실천적 추론'과 '문제'의 주제어가 함께 다루어진 논문은 11개, '실천', '실천적 추론' 등 '실천'이라는 주제어와 내용이 포함된 논문이 총 14개이다.

이 논문들에서 나타난 '문제'는 학습자의 삶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지식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고 태도, 행동, 가치의 변화를 도모(Lee & Kim, 2012)한다는 측면에서 실천적 추론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천적 추론'과 '실천적 문제 중심', '실천적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실천적 문제 중심'과 '실천적 문제 해결'은 실천적 추론을 바탕을 두고 있다. 이때 실천적 추론은 문제와 관련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적인 해결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이며(Brown & Paolucci, 1979, Ryu, 2005 재인용),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실천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천적 추론을 통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행동 결과를 분석·반성하는 과정을 말한다(Chae, 1996). 또한 실천적 추론은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숙련된 지적 사회적 탐구 과정으로(Lee & Cho, 2011), 실천적 문제를 푸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실천적 문제 해결 학습은 그 바탕에 실천적 추론을 내포하고 있다.

2) 실습 중심 학습법

논문 분석 결과 '실습' 및 '실험' 관련 연구들은 총 19편이었다. 이 중 7편 정도가 초등 실과 관련 연구였으며, 나머지는 중등 연구로 이루어졌다. 실습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의 흐름이 있었는데, 첫째는 실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 또는 실습 현황 및 실태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8편이었다. 생활관 실습, 실험 및 실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리실습의 지원 요구도 조사, 조리실습 현황 등이 주요 연구 내용들이었다. 두 번째 흐름은 실습 관련 활동들이 학업성취도, 창의성, 아동들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6편의 연구들이었다. 세 번째 흐름은 실습을 위한 학습자료 및 매체 개발 연구, 통합교육을 위한 실험 프로그램 개발, 실험 방법 개선 연구, 실험·실습법에 적용하기 위한 수행평가 루브릭 개발, 실습 과제 선정에 위한 절차 및 관련 요소 분석 연구들로 총 5편이었다.

실습 중심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법과 프로젝트법과 더불어 교과와 주요 교수·학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습은 수행 또는 실습을 통한 활동으로만 인지하고 별도의 교과 차원에서의 실습 방법의 적용 절차나 도식화되어 있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연구 또한 실습실 관련 혹은 실습활동에 대한 교사나 학생의 인지를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실험 및 실습에 대한 교과 차원의 구체적인 연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 프로젝트법

프로젝트법(총 6편)은 구안법이라는 용어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프로젝트법이라는 용어로 논문에 기술되었으며, 구안법으로 제시된 1990년대 논문 1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논문은 초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일관되게 프로젝트법이라는 교수·학습 방법명을 활용하고 있었다. 가정생활 영역 중 내용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식생활 2편, 의생활 2편, 프로젝트 지적 지원을 탐색하는 교과교육 논문 1편이었다. 논문 구성은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 내용 영역을 적용한 논문이 3편이었으나, 두 편은 '준비단계 → 시작단계 → 전개단계 → 마무리단계'에 따라 적용하였고, 구안법을 적용한 논문은 '목적의 단계 → 계획의 단계 → 수행의 단계 → 평가의 단계'라는 절차를 적용하였다. 1편만이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나타내었다.

4) 협동학습법

논문 분석 결과 ‘협동학습’ 및 ‘토론, 쟁점중심’ 관련 논문은 총 14편이었다. 대부분 협동학습 관련 연구는 초등보다는 중등 관련 연구였다. 협동학습 방법을 논하고 있는 논문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11편의 연구에서 협동학습법, 협동학습모형, 협동학습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 3편 중 2편은 ‘쟁점중심’ 수업 관련 연구였으며, 나머지 한편은 설명학습, 토의학습, 발견학습에 따른 학습 성과를 분석한 논문이었다. 협동학습 모형을 제공하고 이에 가정과 수업을 적용한 연구는 7편이었는데, 관련 주제는 Kagan의 구조적 협동학습 개념, 수준별 역할분담을 통한 소집단 협동학습, Johnson and Johnson의 협동학습 개념, 그리고 LT(Learning Together) 협동학습, 일반적 협동학습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협동학습 연구의 큰 흐름은 4편의 연구에 나타났으며, 이는 협동학습이 가정과 수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였다. 3편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및 교과, 교사, 교과에 대한 태도 및 흥미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한편은 협동학습 조 구성방법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협동학습의 조 구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매체 중심 수업

매체중심 교수·학습방법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는 VTR을 이용한 수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CAI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ICT, WBI, e-Learning 등으로 연구의 방향이 변화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는 NIE, OCL, e-PBL,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중심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총 49개의 논문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IT 관련 매체에 대한 연구였으며(n=41), IT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매체를 다룬 연구는 총 8개가 있었는데, VTR, 도서관 활용, NIE, 독서교육, 미디어 리터

러시, 루브리 등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IT 관련 매체 중 13개는 전반적인 교사들의 인식이나 태도, 실행수준, 적용 전략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머지 논문 28개는 IT 관련 매체를 특정 내용영역에 적용한 연구들이었다. 내용영역 중에서는 의생활 분야에서 매체중심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n=12), 이는 한복이나 반바지 만들기 등의 실습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여주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IT를 활용하는 연구들의 경우, 초기에는 수업의 보조수단으로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최근에는 e-Learning 환경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교수·학습모형을 e-Learning 방법에 적용시키려는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교과의 내용적 특성에 매체들의 특성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부족하고, 단지 새로운 매체를 수업에 한번쯤 적용시켜 보는 정도의 연구가 대부분인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교과에서 기존에 진행된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가정과교육 분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1989년 이후 가정교과와 관련된 3개 주요 학술지(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중등 가정교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 논문 219편을 양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논문에서 연구된 교수·학습 방법, 내용영역, 효과변수들을 정량화하였으며,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는 1989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200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의 연구

가 이루어지다가 2005년 이후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평균 10편 가량의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과학교과에서 연평균 15편 가량의 교수·학습 방법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Kang, 2010) 연구자 풀의 크기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로 판단된다.

내용영역별로는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내용영역을 함께 연구한 ‘문화/통합’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내용 영역 중에서는 의생활, 식생활, 아동/가족, 주생활, 소비/경영의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된 교수·학습 방법 중에는 교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계획한 경우와 실천적 추론 또는 문제해결을 수업에 적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체,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과학교과(Kang, 2010)에 비하여 매체중심의 방법 중 ICT 분야의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경향이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았을 때, 1995년 이전에는 내용중심 방법과 실습/노작 방법, 2001~2005년 사이에는 ICT 연구, 2006년 이후에는 실천적 추론 방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프로젝트 수업과 협동학습은 2000년대에만 잠시 관심을 끌고 2010년에는 관련 연구가 없는 등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방향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용영역별로도 아동/가족 분야는 내용중심과 실천적 추론, 소비/경영 분야에는 매체중심과 실천적 추론/문제해결이 주로 적용되었고, 의생활과 주생활은 매체중심, 내용중심의 방법, 식생활에서는 실천적 추론/문제해결, 실습/노작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 등 주로 관심을 갖는 교수·학습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된 효과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지식 또는 이해도 관련 교육적 효과, 가정교과와 관련된 태도 변화, 일반적 태도 또는 역량 변화, 수업/방법에 대한 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 변수 선택의 시대별 변화를 보았을 때, 초기에는 지식/이해도 평가와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많았던 데 비하여 최근에 와서는 교과와 관련된 태도변수 또는 일반적 태도변수의 활용비율이 높아

져 가정교과에서의 교육적 목표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내용영역에 따라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수업/방법에 대한 흥미도와 교과 관련 태도 또는 일반적 태도/역량을 측정할 때 비하여 식생활 분야나 소비/경영 분야, 의생활 분야는 주로 교과에 대한 흥미도 또는 지식/이해도 위주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가정교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와 교수·학습 방법 분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가정교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는 첫째, 교과교육 내 체계로서 교수·학습 방법의 이론적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며, ICT, PBL 등 교육학적 교수·학습방법의 흐름에 따라 교과에 단순 적용한 것에 그친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Jeon(1998)이 90년대에 실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에 대해 언급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어 가정교과 내에서의 체계적 교수·학습 방법 이론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할 때, 우리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을 강조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수정하기보다는 교수·학습 모형에 학습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교과 내용에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준거나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효과 변수는 인지적 개념 습득이나 교과에 대한 태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과에서 강조하는 ‘태도’라는 맥락보다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추후 교수·학습 방법 또는 수업안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인성은 물론 가치 판단력을 중시하는 교과로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지적 개념, 태도, 가치관 등 가정 교과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후 효과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나, 비교 집단과 통계 집단 간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단순히 수업안을 제시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의 이론적 축적을 위해서는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 가지 교수·학습방법(실험실습, 문제해결, 프로젝트)과 관련하여 연구를 통해 타 교과와 차별화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일반 교육학의 내용을 답습하기 보다는 교과의 고유한 교수·학습방법을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논문들은 충분한 시수가 보장될 경우이나 가능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시수가 항상 부족한 우리교과 수업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들의 경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수업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관련하여 향후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문서와 연계하여 가정영역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가 또한 교육과정 문서에 기여할 수 있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의 주요 교수·학습 방법인 문제해결법, 프로젝트법, 그리고 실습 중심 수업에 대한 보다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교과 연구들이 축적될 때, 비로소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준거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과 교육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와 관련하여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Byun, Y. G., & Kim, Y. H. (1996). *Educa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engineering*. Seoul: Hakjisa.
- Chae, J. H. (1996). Concerns of Home Economics Teachers on Ohio's Work and Family Life Curriculum.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4), 327-343.
- Cho, B.-E., Lee, J.-H., Lee, H.-J., & Ju, H.-J. (2009). Research trends o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i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 review and prospect of research during the past 20 yea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1(3), 143-161.
- Cho, Y. (2006). *Introduction to education: A new approach*. Seoul: Kyoyookwahaksa.
- Hur, J. R., Park, H. K., & Ko, Y. E. (2010). A study on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social studie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0(2), 47-66.
- Jang, S.-O. (2007). Trends of housing education researches in Korea and Japan from 1989 to 2006: Focused o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Journal of Japan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9(2), 115-129.
- Jeon, S. K. (1998). A theoretical view on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Practical Arts Education*, 11(1), 13-30.
- Kang, K. H. (2010). The trend and the issues of domestic studies in relation to science teaching-learning methods.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4(1), 22-32.
- Kim, H. J. (2005). A study on the systematizing of approaches to and methods in Korean language teaching-critical review on the theoretical origin and authenticity of models-.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18(0), 31-64.
- Kim, J. S., Choi, J. A., Ji, H. Y., & Kim, J. H. (2011). Directions of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Suggestions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3), 49-74.
- Kim, J. Y. (2007). A study on how to systemize teaching-learning in classical Chinese.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29, 129-157.
- Kim, K. B., Kim, J. K., Lee, H. S. (2008). *Curriculum Studies*. Seoul: Hakjisa.
- Kim, K. M. & Hwang, S. J. (2005). Qualitative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the [Economics(Gyeong Jae)] class in Korean high school. *Korean Social Studies Association*, 12(1). 257-285.

- Kim, N.-Y., & Lee, K.-C. (2005). A study of consumer education research o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ed on research subject, method and target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7(4), 27-40.
- Ko, J. H. (2008). *Integrative approach to educa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engineering*. Seoul: Kyoyookwahaksa.
- Kondracki, N. L., Wellman, N. S., Amundson, D. R. (2002). Content analysis: review of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in nutrition education. *Journal of Nutritional Education and Behavior*, 34(4), 224-230.
- Kwon, L. L. (2005). Analysis o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s teaching learning method.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1(3), 119-130.
- Kwon, N. W., & Kim, D. Y. (2010). *Understanding teaching-learning method theories*. Seoul: Mooneumsa.
- Kwon, Y. (2013).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evaluation criterion based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5(3), 61-77.
- Kwon, Y. (2014). Evaluation and exploration of future direction for the 2009 Amendment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Proceeding fo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Summer Conference*.
- Kwon, Y., Jin, E. N., Lee, E. K., Jeon, S. K., Choi, J. Y., Wang, S. S., Lee, S. B., & Lee, Y.-J. (2013). *Exploring the direction for National Curriculum in preparation of future society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Including Practical Arts,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 Lee, J. H. & Cho, B. E. (2011).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focused teaching plans for teenagers'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in the 'Family life in old age' uni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3(3). 161-183.
- Lee, S. H. (1999). *Teaching methodology*. Seoul: Hakjisa.
- Lee, S. M. & Kim, H. J. (2012).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with problem-based learning through book-making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4(3), 101-122.
- Lee, S.-M.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curriculum autonom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9(3), 77-98.
- Moon, H. K., & Lee, Y. Y. (2009). Research trends i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1(2), 109-125.
- NATEFACS(2008).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Retrieved April 20, 2014 from <http://www.nasafacs.org/national-standards-home.html>
- Park, S. H., & Yeom, M. S. (2002). *Teaching-learning and educational engineering*. Seoul: Hakjisa.
- Ryu, S. H. (2005). Effect of practical reasoning teaching strateg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blem solving action in practical arts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 Education*, 20(2), 75-87.
- Song, S. Y. (2009). The teaching-learning theory and method of the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Journal of Chinese Characters &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5, 55-86.
- Suh, H. (2005). The principles of constructing teaching-learning metho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4, 297-324.
- Wang, S. S. (2003). The perception of teachers on the instructional method of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5(1), 15-32.
- Yu, I.-Y., Bae, H.-Y., Lee, J.-H., Min, E.-H., Choe, M.-S., Cho, J.-S. (2008). Research trend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h. D. dissert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0(4), 239-252.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와 관련된 3개 주요 학술지의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 219편을 분석함으로써 가정과교육 분야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연구의 교수·학습 방법, 내용 영역, 효과변수들을 양적으로 부호화 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주요 학술지들이 출간되기 시작한 199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0~2011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내용 영역으로는 특정 영역을 구분하지 않거나 2개 영역 이상을 통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된 교수·학습 방법 중에는 교과와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천적 추론 또는 문제해결이나 IT 관련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내용 영역별로는 아동/가족 분야는 내용중심과 실천적 추론, 소비/경영 분야에는 매체중심 방법과 실천적 추론/문제해결이 주로 적용되었고, 의생활과 주생활은 매체중심, 내용중심의 방법, 식생활에서는 실천적 추론/문제해결, 실습/노작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 등 주로 관심을 갖는 교수·학습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로 활용된 효과 변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지식 또는 이해도 관련 학업성취도, 가정교과와 관련된 태도 변화, 일반적 태도 또는 역량, 수업/방법에 대한 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구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분류라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 연구들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문서 체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7월 03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09월 23일